

# 한국-티베트 '풀뿌리운동' 전개

## 본사-달라이 라마 한국지부 공동 추진 종교·학술·의학·예술분야 상호교류

한국-티베트 간 불교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달라이 라마 동북아시아사무소(일본 신주쿠 소재) 한국지부가 최근 서울 청운동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에 설치했다. 이에 따라 현대불교신문은 올해 초부터 준비해온 '한국-티베트 풀뿌리운동(Grassroots Movement)'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 ■ '한국-티베트 풀뿌리 운동'은?

'한국-티베트 풀뿌리운동'은 한국과 티베트 간의 학술, 의학, 예술, 종교분야 등 범문화적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여러 한국 불자들이 풀뿌리처럼 티베트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류를 맺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1대1 교류 및 단체 대 단체, 개인 대 단체 등 다각적인 인연을 맺는 운동을 벌인다는 것.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 내의 승가대학 및 사찰의 학인 스님들을 후원하는 활동도 벌인다.

### ▲ 범문화적 상호 교류

동북아시아사무소 한국지부를 통해 매년 티베트 불교, 학술, 의학, 예술 등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와 워크숍, 학술회의 등이 열릴 예정이다. 첫 공식행사로 오는 7월 15일~21일 까지 서울 법원사 불일미술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강남 봉은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래 만다라(Sand

Mandala)와 '구토사원(Gyuto) 특별 예불의식' 전시 및 시연회가 열린다.

### ▲ 의학, 종교 분야 출판 교류

티베트 문화 종교 의학 예술 분야 서적을 출판하는 유일한 출판사인 인도 팔조 출판사와 상호 교류 및 보급 활동을 벌인다. 팔조 출판사가 출간한 모든 티베트 관련 서적은 한국 여시아문(www.yosiamun.com)에서 인도 현지 가격으로 제공한다. 특히 여시아문은 팔조출판사가 보유한 티베트 고문서 도서관 서적들의 한국 내 홍보, 번역 및 출판도 담당한다.

### ▲ 온라인 네트워크 교류

현대불교신문 불교정보센터인 부다피아(www.buddhapia.com)는 1999년부터 티베트 관련 정보 서비스 및 단체 홈페이지 무료 호스팅을 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티베트센터(www.buddhapia.com/tibet), 가덴 장세(Gaden Jangtse Noring College) 사찰 공식 홈페이지(hompy.buddhapia.com/gaden) 등도 개설했다. 조만간 달라이 라마 동북아시아사무소 한국지부 공식 홈페이지와 함께 7월부터 영문 부다피어를 통해 달라이 라마의 <용수 보살보리심론> 동영상 서비스도 온라인상의 티베트 네트워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 ▲ 인연 맺기

가덴 장세, 드레퐁 로세링(Drepung Loseling) 등 티베트의 전통사



지난해 11월 현대불교신문과 자매결연을 한 티베트 승가대학 가덴 장세 주지 켄 린 포체 스님(왼쪽)이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정보센터 실장 정철 스님에게 결연을 축하하며 스카프를 전달하고 있다.

찰, 강원, 불교대학 등에서 정진하는 젊은 학인 스님들을 후원하는 '1인 1구좌 갖기' 운동이다.

현재 현대불교신문은 가덴 장세 승가대학과 더불어 비구니 교육기관인 장양 초림(Jamyang Choling Institute)을 후원하고 있다. 가덴 장세 후원자는 가입과 함께 1개월 이내로 보시금을 받는 스님의 인적사항을 담은 확인서를 받게 된다. 또 장양 초림은 후원자가 직접 스님 명단을 확인하고 후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모아진 후원금은 3개월에 한번씩 현지에 전달된다.

이밖에 티베트 사찰, 단체, 교육기관과 유대관계 또는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국내 사찰, 단체 등에게 연결 리를 제공하게 된다. 자매결연한 사찰은 학인 스님 교환학생 초청 등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한상희 기자

### '인연맺기 운동' 동참은?

1구좌는 1개월에 3만원. 이 1구좌로 티베트 스님 한 명의 한 달간 숙식 및 학비가 해결된다.

1개월 또는 1년(10개월 기준, 30만원) 단위로 보시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에 한해 별도의 개인보시도 가능하다. 후원자가 되면 본인이 후원하는 스님의 졸업식, 학위 수여식 등에 초대된다.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 방문 시 후원 스님과 함께 스님이 머물고 있는 해당사찰을 둘러볼 수도 있다. (02)2004-8220 후원계좌 국민은행 006002-04-017992 예금주 엄윤정.

## 불교계, 수경사 진실규명 나섰다

### 왜곡보도 확인시 언론중재위에 제소키로

수경사 아동학대 당사자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무인 스님이 7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된 내용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무인 스님은 수경사에서 해명보육원으로 옮겨진 4살 동갑내기 윤경이와 윤건이, 윤서를 만나고 난 후 본지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잘못 보육한 잘못이 있다면 백번

이라도 사과하겠지만 인신매매를 하고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등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수경사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불교인권위와 평불협, 대불청 등 29개 출·재가 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진상 규명활동에 돌입했다.

수경사 언론보도 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혜총, 이하 수경사대책위)

는 7월 13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와 인신매매 여부 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왜곡된 부분이 확인될 경우 SBS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상임대표 혜총 스님은 "경찰이 4번째 청구한 구속영장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전제한 뒤 "방송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한다"며 아동 인신매매 여부 등을 규명할 토론회를 SBS와 수경사에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SBS는 7월 13일 내부회의를 통해 사실상 토론회를 거부한 상황이다.

유철주 기자

## "불교미술 창의성 부재"

### 윤범모 교수 '불교평론'서 기형적 불사문화 비판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최대'로 만드는 데 애쓰는 불사문화가 현대불교미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술평론가 윤범모 경원대 교수(회화학과·사진)는 <불교평론> 제23호에 발표한 논문 '현대 불교미술의 시대미감과 창의성'에서 "불사 시장이 한 해 수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미술의 발전은 일천하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기형적인 불사문화에서 찾았다. 윤 교수가 말하는 불교미술의

가장 큰 문제는 창의성 상실. 윤 교수는 "창의성은 미술의 핵심 개념"이라며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건 올바른 불교미술은 창의성을 기본으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해왔다"고 강조했다. 창의성 결여 문제와 관련, 윤 교수는 "전통성에 바탕을 둔 장인과 현대성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가가 서로 협력하면서 제3의 창작을 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장점을 외면하는 것이 지금의 풍토"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창의성과 시대정신이 담긴 불교미술의 발전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불사문화가 이 같은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윤 교수는 "공개적 입찰을 거치지 않아 훌륭한 아이디어의 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불교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과거 고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불사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

"이 같은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계종이나 정부의 불교미술 관련 업무가 혁신돼야 하며, 작가는 투철한 작가의식과 창의성으로 시대정신을 살린 '오늘의 미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윤 교수는 강조했다. 박익순기자

## 세계박물관 박람회 시정 요구

### 조계종 문화부 공문보내

경기 한국종합전시공간(KINTEX)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박물관문화박람회에서 불교문화가 종교관이 아닌 민속관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본지 기사(534호 2면 기사참조)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탁연)가 박람회 실행위원회(위원장 신윤식)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문화부는 7월 15일 △종교관 명칭을 기독교문화전교관 등으로 바꿀 것 △민속관에서 불교 관련 유물을 전시할 것 △이 같은 일의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박람회실행위원회 신윤식 위원장은 "조계종은 물론 대표적 종교의 종단과 성보박물관에 참가공문을 발송했으며, 국외박물관이 민속관에

포함된 것 또한 박물관 측이 원했기 때문이다"며 종교 편향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익순 기자

### 조계종 결연청소년 70명 8월 1~4일 마곡사 캠프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정남)는 오는 8월 1일~4일 공주 마곡사에서 '조계종 결연청소년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이 3회째인 청소년캠프는 조계종과 결연을 맺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70여명이 참가한다. 캠프는 자기 긍정 명상, 문화유적 탐방 등으로 꾸며진다. (02)2011-1820 유철주 기자

### 대불련, 대구서 여름대회 8월4~10일 리더십 캠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김홍현, 이하 대불련) 24차 여름대회가 7월 22~25일 동화사 및 대구 일대에서 '아름다운 청춘, 당당히 꽃피어라, 대불련! 언제나 ING'를 주제로 열린다.

대불련의 여름대회는 참다운 생명가치를 발견하는 대중대회이자 정진과 성찰 전법의 장으로 준비 중이다.

한편 8월 4~10일에는 제주도에 서 대불련 리더십 캠프가 열린다. 리더십 캠프에서는 회원 간 커뮤니케이션, 지부 지회 비전 수립, 사찰 및 불교문화답사, 캠프, 한라산 및 오름 산행, 바닷가 프로그램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이 마련되어 있다. (02) 732-0239 김지연 기자

## 나눔의 집 요양원 건립 난항

### 수질보호구역 묶여 광주시서 불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전문 요양원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 광주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원장 원형)'이 인근 퇴촌면 원당리 대지 700평에 조성할 계획인 '위안부 할머니 전문 요양원'이 광주시의 난색 표명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할머니들

을 위한 요양원 건립을 2002년부터 추진해 왔다. 피해 할머니들 대부분이 70대 후반의 고령으로, 피해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어 할머니들을 위한 전문의료시설 설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나눔의 집' 후원자들을 상대로 '땅 한평 사기 운동'을 벌여 1억 8천여만원을 모금해 토지를 매입했고, 현재까지 약 1억 4천여만 원을 후원받아 놓은 상태다.

이미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의 조감도와 건축 설계 계획도 끝났다. 보 건국지부는 요양원이 설립될 경우 전체 예산 중 건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자체의 허가를 선조건으로 제시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 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인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건축 설립 허가가 나지만 퇴촌면 원당리의 경우 수질보호구역 대책 제1구역에 포함돼 있어 나눔의 집 요양원 건립은 환경부 고시에 먼저 걸리게 돼 시설 건립이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나눔의 집 측

이 하수관 연결 등 허가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이미 완료했는데도 광주시에서 '나눔의 집' 요양원 설립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환경법 때문이 아니라 추후 요양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눔의 집 안전관 국장은 "할머니들 요양원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지자체와 합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나눔의 집'은 요양원 건립 부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공원에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김강진 기자

카시는 길. 부담되고 싶지 않은 부모마음, 고인이 되더라도 편히 모시고 싶은 자식마음,  
이제 안심하십시오. 미래의 여유, 국민상조가 함께 합니다.

리무진 행사차로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최고의 서비스를 단돈 하루 660원으로 해결!! 한달 20,000원씩 99회면 걱정 끝 OK!!

| 제 공 상 품                                  | 내 용                                       |
|--|---|
| 관  | 오동나무 1치 5푼                                |
| 수의(순창포 대용직물)                             | 삼베(명주) 세마포                                |
| 초혼, 수시, 염습, 입관, 출상                       | 무료봉사                                      |
| 도포, 원삼, 천금, 지급, 명정, 관보, 결관보(외울베)         | 무상제공                                      |
| 상복, 굴건 제, 복조끼                            | 무료직계상주                                    |
| 행전, 두건, 작지, 요절, 수절                       | 무상제공 10EA                                 |
| 훈백함, 위패, 습신, 리본, 침지, 운아, 폐백, 다리니경, 입관총관물 | 무상제공                                      |
| 양초 향, 짚신, 축문, 부의록, 선도차 장식                |   |
| 영정바구니, 근조기, 병풍, 조등, 향로, 촛대, 잔대           | 무료대여                                      |
| 케달락 또는 장의버스 중 택일                         | 알선서비스(공원묘지, 납골당, 장례비신청, 장의버스, 장례식당, 이장안내) |
| 특별무료 전국운행                                | 파견  |
| 1급장례지도사 2명 행사도우미 1명                      |   |

\* 효력 발생은 1회차 불입 후 부타이며 일주일 내 회원증서와 회원카드를 보내드림(본 증서로 원하는 분 누구에게나 양도 가능)  
\* 회원의 빈소, 손님 접대와 음식, 장지만 준비하시고, 나머지 모든 절차는 저희가 책임지고 내 부모님 모시기 열과 성의를 다해 봉사하겠습니다.(일체의 봉사료는 사절합니다)

**KS**  
Kookminsangjo

· 본사 서울시 양천구 목 2동 131-119 KS빌딩 · 팩스 : (02)2654-1414  
· 전국 어디에서나 1544-4110 · H.P : 011-581-8851(대표 남광일)  
· www.kookminsangjo.com · www.kookminsangjo.co.kr · www.국민상조.com